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10월 발행 (제 78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가뉘를 마구치다' 예레미야

◎간증 '때를 알다'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오늘 박사 마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자합니다. 종말의 날에 교회가 배도 한 하나님과 성경 행크을 마구있게된다는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텍스트의 부분에서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2:3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이 텍스트에 따라보고 갑시다.

**"왜 나라는 소동 서 (KJV : 분노) 국민 낙담 원망하거나 (KJV : 헛된 것을 생각 하는가)."**

마지막 날에 군중이 하나님 께 분노, 또한 헛된 것을 생각 날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곧 하느님의 규정과 가르침에 대해 분노를 발하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운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허망한 교리를 믿고지지하게된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지지하는 등의 허망한 교리 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2: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에서는 땅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설 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라는 말은 다음 아마겟돈 부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시편 구절은 사실 요한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 한 부분이며,

그렇게 이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의 왕은 다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왕이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땅에 사는 사람은 KJV 에서는 "땅에 정착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쓰여 있습니다.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다음에 쓰여진 지상의 나그네 인 아브라함과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13** ○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1: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1: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땅에서 나그네이며 나그네로 견고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로, 땅에 사는 것이나 땅의 왕은 하늘의 고향보다는 세상에 정착 세상의 가치와 목적 걷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은 그런 세상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비유와 이해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 주로 주로 기름 부음받은자를 반대한다."**

세상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날이 올 수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행크을 부수고 그들의 밧줄을 풀어 버리자."**

여기에서는 땅의 왕 즉 세상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크를 부스려고 할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크라는 말은 다음에 멩에로 쓰여진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70 인역)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11:30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멩에를 메고 걷는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멩에 등지지 싶지 않다고  
거부하고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멩에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행보를  
가리 키도록 생각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우리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 종말의 날에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들은 십자가를 지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멩에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인 행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이 부과을 풀고 자신을 묶는 줄을 찢어 주인의 집을 탈출하게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성경과 전혀 다른 행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제 위에서 보았 듯이 땅의 왕이라는 말은 요한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의 설명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살펴 보자.

**요한계시록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15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한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종말의 날은 더러운 귀신이나 악령이 교회에 일하는 날입니다.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귀신에 대해 그것은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있는 성령의 제 3 의 물결을 비롯한 '표적과 기사를 실시 부흥의 영 "매우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보다는 악령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영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왕들에게 나간다."**

여기에서는이 영이 "세상의 왕들에게 나가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비록의 의미로이 표적과 기사와 부흥은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주게된다 그 영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그 카세을 제거하는 작용이 나오는데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 부흥의 영에 영향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영에 영향을받은 많은 그릇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스캔들 문제를 일으키거나하고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지배자 인 하느님의 큰 날의 전쟁에 대비하여 그들을 모으는 때문이다."**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 미혹의 영에 미혹 된 땅의 왕, 즉 세상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전투에 들어가기 위해 대거 모일 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싸우고 누구에게 싸우려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받은 것에 반대 '라고 쓰인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반항하고 거역 싸움을 도전입니다.

그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카세을 마구 친다"라고 쓰여져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옥죄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 반대를 표명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성애는 옳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 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은 편협한이며, 다른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 가르치고 종교 테러를 가지고 가르치므로 폐기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등의 가르침은 비 과학적이다 등 비난하게되는 것입니다.

**"-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올 것이다. 깨어 몸에 옷을 내고 알몸으로 걷는 수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하는자는 복이있다 .--"**

그런데 이런 땅의 왕들이 싸움이나 반항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같이 "몸에 옷을 내고 알몸으로 걷는 수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모노라는 말은 다음의 '옷'이라는 말의 원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서는 의의 흰옷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옷을 내고 알몸으로 걷는 수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한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잃지 않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말씀이 땅의 왕들의 반항과 함께 그려져 있는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즉 그날 땅의 왕들에 현혹 된 사설과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 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에서 떨어지는 기독교인은 모두 의의 옷을 잃고 구원을 잃게된다 이렇게 경고하고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렇게하고 미혹 된 세상 붙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싸움의 결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이 왕의 비극적 인 최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 아마겟돈의 의미는 므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므깃도는 대평원에서 산 등 없습니다. 그래서이 말씀은 비유의 의미가있는 듯합니다. 므깃도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멸망 한 장소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3:29**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23:30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멸망 해 버린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같이 므깃도에서 멸망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아마겟돈 전쟁에 반항하는 왕들의 운명과 관련하여 암시하고있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멸망 해 버리는 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의 배교는 예언되어있다>

종말의 날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그 카세을 계산하고 배교를 진행할 수 데살로니가 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종말의 날에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자신들을 옥죄는 모든 가르침을 배반하게되고 자유로운 통행 죄의 길을 걷게되는 것은 여기에서도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 그 배도 교회의 왕좌 즉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쫓겨 적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들이 성경 구절은 "불법의 사람"(죄악의 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행크를 상하게 밧줄을 풀어 버린다는 다른 표현을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등 신경 쓰지 않고 죄의 길을 걷는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이 그려져있는 것은 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카세을 부수고 밧줄을 풀어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트집을 반항 결국 그리스도를 내쫓았다 배교의 교회가 그 보답으로 적 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을 신으로 받아들이게 될 여기에 쓰여져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카세을 부수고 싶은 밧줄을 풀어 버리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날이 올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음의 말씀처럼,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받게됩니다.

**요한계시록 14:9 ○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기록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카세을 부수고되고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러나 현재 교회는 해마다 점점 하나님 행크을 부수고 그 밧줄을 풀어 방향으로 걷고있는 것을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교회는 성경을 거슬러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한 살인과 가르침을 거슬러 전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거슬러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 모두의 텍스트에있는 것처럼 전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슬러 모여 결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제대로 여호와와 말씀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목사

## “때를 알다” H.F

---

"시간을 구별하라고" 누가 12 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일어나고있는 사건의 일부를 근거로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2015 년 9 월 25 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 전날 2015 년 9 월 24 일, NY 맨하탄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메시지를했습니다. 그 속에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으로보고 실패였다 며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음 화제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은 연설에서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될 수있는 표현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과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라는 호칭은 이슬람의 하나님에 이용하는 말입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말씀하신 내용 교황의 메시지를 들었다, 또는 읽은 많은 성경적 평신도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2:8**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죽음을 멸망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 인 사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행전 2 장 32 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 셧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죽음 승리 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요 진리입니다.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 았으 셧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지도자 인 교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죽음에 대한 승리의 것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가 실패 였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교황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하나님의 호칭이며 주 예수를 무시하는기도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히 따른다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합의하는 것은 우선 생각할 수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있는



것입니다. "쿠리스라무"이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혼합 된 명칭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려고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교황은 에큐메니컬 다른 종교와의 대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황은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쿠리스라무"의 흐름은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동일합니다. 2007 년 이슬람 학자 나 성직자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과 너희 사이의 일반적인 기간을 '이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응답 서한에 서명 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명한 릭 워렌을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 교단과 신학교를 대표하는 목사와 교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있는 국립 대성당에서 금요일에 이슬람의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 년 6 월 미국 장로 교회 총회에서는 이슬람이 알라에게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눈꼬리를 세울만한 일이 아니다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한다면,보기 좋을 것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무시한 일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런 일이 일어나고있는 지금은 과연 축복의 시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도서 1: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3: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초대 교회 때조차도 이상한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다고 사도들은 경고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미혹하는 영을 통해 더욱 어려운시기가 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지막 이별을했을 때, 그들에게 경고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0:29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20:30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 가운데 이단적인 가르침을 반입 자 여러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사도들의 초대 교회에서 2000 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본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말에 도달 해 있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때를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



이슬람의 모스크